그림으로 그린 금강경, '다이아몬드경'

김보민 초대 개인전 '금강' 展
5월 31일~6월 13일 수덕사 선미술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금강경〉의 '금강' 이미지화한 그림
다이아몬드 세공하듯 조각으로 완성
"〈금강경〉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
시대가 요구한 동시대적 융합이미지

〈금강경〉의 '금강(金剛)'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모습일까. 화가의 마음으로 바라본 〈금강경〉의 '금강'은 어떤 모습일까. 한 화가의 화두가 된 '금강'을 그림으로 만난다.

김보민 작가가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초대 개인전 '금강'을 개최한다. 김 작가는 첫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서 '금강'을 바라본 현대미술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금강'의 또 다른 말인 '다이아몬드'를 화가의 시선으로 해석해 추상적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에서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듯이 빛나는 부분들을 잘라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또 다른 배경에 붙여 하나의 그림, '금강'을 완성했다.

이미지로 치환된 또 다른 〈금강경〉의 형상으로, 화가의 마음으로만 읽을 수 있는 〈금강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배경의 재료는 캔버스에서 종이까지 다양하다. 김보민이 세공한 김보민표 '금강'은 또 다른 모습과 빛깔로 단단하게 반짝인다. 다이아몬드는 곧 반짝이는 눈이 되고, 그 눈으로 보고 그려지는 것은 영혼이 담긴 심미적 표현이다.

김 작가는 어리석은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진했다. 그리고 그 정진의 과정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 그림은 다이아몬드(금강)를 그린 것이다. 작품의 소재인 다이아몬드는 바로 〈금강경〉의 '금강'이다. 김 작가는 마음이 어지러울 때, 〈반야심경〉 독송으로 마음 한구석의 시름을 덜곤 했다. 그렇게 불교와 가까워졌다. 단단해진 불심은 어느새 삶의 큰길이 되었다. 어려움이 올 때면 제일 먼저 집어 들게 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었다. 김 작가는 크고 작은 번뇌가 찾아올 때면 〈금강경〉을 집어 들었다. 경전의 제목이 '다이아몬드경'이라니, 화가 김보민에게 〈금강경〉은 너무나 예쁜(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렇게 가까워진 〈금강경〉이었다. 〈금강경〉의 금강(金剛)은 금강석, 곧 다이아몬드를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반짝이기에 부처님의 가르침, 반야의 지혜에 비유한 것이다.

김 작가는 풍부한 감성, 생생한 상상력과 선명한 창작능력으로 자신만이 갖는 고유성을 쌓으며 자신만의 내면을 갖춘 주체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의 심성을 마주한 작품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조각들을 마주하는 여행을 하며 인생의 다양한 층위를 들여다보는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사회적으로 기능을 갖춘 데에서 비롯한 시대정신에 의거해 작품으로 승화시킨다. 그러므로 김 작가는 사실적인 묘사력으로 사진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추상의 나래를 맘껏 펼치는, 이 시대가 요구한 동시대적 융합의 이미지와 감성을 담아내고 있다. 김 작가의 작품세계에서의 아름다움은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과 세상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을 빚어내고 창작하는 것에 몰입하고 있다는 화단의 평가를 받고 있다.


영원히 유랑하는 금강 58x46cm, 2022, 혼합

화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름다움을 찾는 일일 것이다. 김 작가는 "나에게 그림은 끊임없이 내 마음 안에 반짝이는 보석을 빚어내는 일이다. 알아차리고 캐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선근, 아직은 실 가닥처럼 얇지만 옳은 방향으로 이 선근을 뿌리내리는 일이 인생의 과제가 되었다. 무수한 별들의 수만큼이나 우리들은 천만가지 고민과 실수, 반성과 기도, 행복과 불행을 반복하며 나를 찾아가는데, 예술은 나에게 조금 더 섬세하고 아름답게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김 작가는 다음 전시는 또 다른 다이아몬드의 모양인 정통동양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김 작가에 의하면 동양화는 재료의 문제가 아닌 마음자세에 따라 특별하게 분류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 마음자세를 더 효과적이고 예리하게 수양하기 위해 부드러운 선지와 유연한 붓을 택한다면 더욱 적절할 것이라는 것이다. 재료나 화법, 이론적 지식과는 무관하게 동양화의 목적은 몸과 마음을 위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본 작업은 '현대미술'의 정의를 포함하고 동양예술의 깊은 정신성으로 결국 맞닿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김보민작가는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조기졸업하고 중국미술학원 화조, 산수화과 석박사를 전액국비장학생으로 마쳤으며, 제4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 서울시의회의장상을 수상, 제4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부문 평론가상. 제4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 특선, 제12회 후소회 청년작가전 특선, 2016 항주 서령인사기획 중국미원우수졸업작품 선정, 2016 후라이왕 중국 전국미술대학 졸업전시 우수작 선정, 2013, 2015 사해예동 중국미술학원 유학생 비엔날레 우수상, 2011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졸업전시 최우수작품상, 2005 5.18기념 휘호대회 사군자부문 청소년부 대상을 수상했다.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위해…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특별전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을 꿈꾸다'
5월 20일 ~ 9월 12일, 기획전시실

선정까지 과정 · 회암사지 가치 소개
〈청규〉 등 회암사지 관련 유물 전시

양주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5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을 꿈꾸다'를 개최한다.

양주 회암사지는 지난 1월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할 수 있는 잠정목록에 선정됐다. 이를 기념하여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의미와 양주 회암사지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약 7년에 달하는 도전 과정을 안내하는 전시를 마련했다. 전시에서는 먼저 회암사지의 하루를 타임랩스(Time lapse)로 연출한 영상을 소개한 후, 유네스코 기구의 활동 및 세계유산의 분포와 등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들과 역사기록, 동아시아 선종의 규범서인 〈청규〉 및 도면자료 등을 통해 회암사지가 지닌 가치를 소개한다. 또한 지금까지 7년에 걸친 연구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연구진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유산을 준비하는 회암사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며, 전시 마지막 공간에서는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관람객과 함께 희망하는 메시지 쓰기 미디어체험도 진행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했다. 1부에서는 유네스코 유산의 의미에 대해 소개한다. 유네스코는 인류가 보존해야 할 각종 문화, 자연, 기록을 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한다. 양주 회암사지는 고고유적 단독유산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세계유산(문화유산 분야) 잠정목록으로 선정됐고, 특히 폐사지로는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양주 회암사지.

2부에서는 양주 회암사지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대해 소개한다. 양주 회암사지는 14세기 동아시아 불교 선종의 수행 전통 및 공간 구성 체계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고고유적이다. 동시에 건물터와 고승 관련 기념물의 잔존은 고려의 선종이 조선으로 이어진 약 200여 년간 불교 선종 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3부에서는 세계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양주 회암사지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양주 회암사지는 지난 7년의 노력으로 잠정목록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 남은 본 등재까지 양주시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이행하며 회암사지의 보존 및 가치 활용과 세계유산을 향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5건의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국내문화와 자연의 유산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유산 본 등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국의 유산을 잠정목록으로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지난해까지 총 12건이 올라 있었으며, 그 중 양주 회암사지가 잠정목록에 선정됐다.

12세기경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보는 양주 회암사는 고려말 전국 사찰의 총본산이었으며, 조선 초에 불교계를 선교 양종으로 통폐합할 당시에도 선종 본찰로서 크게 번영했다. 또한 당시 불교계를 사상적으로 이끌었던 지공, 나옹, 무학 등의 고승들이 주석했던 최고의 가람이다. 현재의 회암사지를 볼 때 대규모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회암사가 대규모 가람으로 중창된 것은 고려말에 인도 고승인 지공의 예견과 그 제자인 나옹이 그 뜻에 따라 대대적인 불사를 통해 이뤄졌다. 1964년에 사적 128호로 지정된 회암사지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0차에 걸쳐 사찰의 중심권역을 발굴, 조사했다. 발굴조사 결과 회암사는 일반적인 사찰과는 달리 궁궐과 유사한 건축양식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됐고, 왕실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도자기류와 기와류 등 귀중한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고려 말, 조선 초 최대 사찰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재완 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페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